

보도시점 (전매체) 1. 25.(목) 10:00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화를 위해 지자체-벤처기업과 현장간담회 개최

- '24년 본격 시행하는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충북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를 방문하여 현지 시설 및 준비 현황 등 점검
-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적용, 정부·지자체·민간 협의체 운영, 해외 실증 및 국제 공동 기술개발(R&D) 지원 등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세계(글로벌) 협력 동반자(파트너)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약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충청북도는 25일 충북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위치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첨단재생생명공학(바이오) 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한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충북은 오송을 중심으로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이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과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돋보인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오송을 찾은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정선용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들을 둘러본 뒤,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학교병원장, 베스티안병원 이사장 등을 비롯해 첨단재생생명공학(바이오) 벤처기업 7곳이 참석했다.

참석한 벤처기업 중에는 충북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 기업들도 함께해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정욱 실장은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를 위해 ①명시적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신속 임시허가 제도 도입, ②정부-지자체-민간 협력(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위험(리스크) 및 성과관리, ③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국제협력 해외 실증 및 공동기술개발(R&D)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재생생명공학(바이오) 분야는 사회적·윤리적 쟁점(이슈) 등으로 국내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미 협력체계를 구축한 일본 생명공학(바이오) 협력지구(클러스터)인 쇼난 아이파크와 연계해 협력지구(클러스터) 입주, 공동 연구개발과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의 생명공학(바이오) 협력지구(클러스터) 등을 비롯하여 세계(글로벌) 협력 동반자(파트너)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지자체-민간 협의체를 운영해 특구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며 위험(리스크) 요인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들은 충북의 첨단재생생명공학(바이오) 분야 특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북도는 즉시 반영 가능한 과제는 특구 계획 및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등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임정옥 실장은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 국면(모멘텀)이 되고, 벤처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여 세계(글로벌)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충북 첨단재생생명공학(바이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가 우리나라 생명공학(바이오) 분야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첨단생명공학(바이오) 분야는 해외 진출이 필수적인만큼 우리 기업들의 세계(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충청북도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대학교 병원, 베스티안병원 등 7개 기관*은 충북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 협약기관(7) :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대학교병원, 베스티안병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충북테크노파크

업무협약은 충북의 첨단재생바이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 및 세계(글로벌) 실증환경 구축, 세계(글로벌) 진출 및 투자지원, 기업 유치 지원 등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담당 부서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담당자	사무관	고주현 (044-204-7195)



참고 1

글로벌 혁신 특구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계획

□ 개요

- (일시) 1.25일(목) 10:00~12:00 (120분)
 - (장소)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충북도청, 오송재단, 첨단바이오 벤처 등 16명
 - 중소벤처기업부(2) : 창업벤처혁신실장, 특구정책과장
 - 충북도청(3) : 정선용 행정부지사, 맹경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 오송재단(2) : 차상훈 이사장, 이제욱 신약개발지원센터장
 - 유관기관(2) : 최영석 충북대학교병원장, 김경식 베스티안병원 이사장
 - 벤처기업*(7) : 툴젠 이병화 대표, 케이셀바이오 이종성 대표, 유스바이오글로벌 유승호 대표, HK이노엔 김봉태 신약연구소장, 아이피에스바이오 송지환 대표, 입셀 남유준 부사장,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
- * 충북 소재 4개사, 충북 이외지역 3개사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기관 방문	10:00 ~ 10:15 ('15)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프라 브리핑
	10:15 ~ 10:50 ('35)		• 주요 연구 시설·장비 시찰
간담회	10:50 ~ 11:00 ('10)		• 개회 및 인사말씀
	11:00 ~ 11:05 ('05)		• 충북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업무협약식 및 기념촬영
	11:05 ~ 11:15 ('10)		• 충북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계획 발표
	11:15 ~ 11:55 ('40)		• 업계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11:55 ~ 12:00 ('05)		• 마무리 말씀

참고 2

충북 글로벌 혁신 특구 개요(첨단재생바이오)

◇ (목 표) 글로벌 유니콘기업 1개 육성, 중소벤처기업 60개사 유치 등

◇ (필 요 성)

- 첨단재생바이오 시장규모는 2017년 \$230억에서 2026년 \$2,140억으로 약 9배 이상(연평균 22.7%) 성장 전망

◇ (사업내용)

- ① 규제와 국내 실증을 통한 안전성 입증
- ②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실증 환경 구축
- ③ 국내·외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 추진계획

○ (실증) 국내외 실증 환경 및 생태계 구축

- 전 개발단계 연계 혁신거점 및 보유 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증 환경 제공



□ 기업 지원계획

① (기업 발굴)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 발굴

- (Outbound) 혁신기관 네트워크 활용, 전국 연구중심병원, 투자기관 추천
- (Inbound) 아시아 바이오 파트너링 포럼 오송 개최

② (기업 지원)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사업적 실증 지원

- 창업, 사업화, R&D자금 활용 +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③ (글로벌 진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 원스톱 글로벌 진출, 글로벌 판로개척, 글로벌 투자유치 등 지원

④ (투자 지원) 중소벤처기업 투자 지원 및 후속투자 연계

- 비임상 직전부터 임상1상 이전까지의 초기단계 투자 + VC 후속투자



□ 지역현황 및 활용 · 연계 방향

- (중앙정부) 정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앙정부 정책 기여
- (혁신기관, 거점 등) 바이오 혁신 자원 활용 → One-Stop 통합지원

